

오늘부터 4대 서민금융상품 문턱 낮아진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대출요건 완화 소득 3천만→3500만원으로 확대...159만명 추가 혜택

내일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대출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을 제한하던 소득과 신용등급 요건이 일부 풀려 더 많은 이들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저소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민금융협의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지금까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3500만원 이하도 이용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 요건도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소득 요건 완화로 159만명이 추가로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창업·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는 미소금융 신청 기준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355만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인당 지원 한도도 늘린다.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원(연간 300만원)에서 120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간의 지원 한도가 실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청년층이 고금리 대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년·대학생 워크아웃 진행자의 학자금 제외 평균 채무액은 1300만원 수준이다. 구직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짐을 고려해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2년씩 늘렸다.

저소득층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된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대출이자율은 연 4.5%다.

대출받은 지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올해 5월 2일부터 판매된다.

정부는 또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취약계층에 연 3% 금리로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연 2.5%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불허 협약서' 쟁점

금호그룹 "中 더블스타에 보낸 공문 달랠"...산은 "줄 이유 없어"

산업은행이 중국의 더블스타에 쫓다 '협약서'가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산업은행-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간 갈등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이 협약서를 받지 못해 매매조건을 완전히 통지받은 것이 아니므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밝힐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은 협약서를 박 회장이 쥐어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일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금호타이어 입찰 과정에서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에 대해 문의하자 산업은행은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박 회장 측은 이 공문을 '협약서'라고 지칭하고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에 보낸 서류가 있으나 '협약서'라는 이름의 공문은 없다며 협약서라는 표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컨소시엄 불허'는 박 회장과 채권단이 2010년에 맺은 약정서의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란 조항에 대한 산업은행의 해석이다.

산업은행은 법무법인에 자문에 이런 입장을 세웠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 금호타이어 입찰의 흥행을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금호타이어를 되찾아갈 것이 확실

시되는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입찰에 나설 기업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 측은 지난달 16일 금호타이어의 매각 절차를 문제 삼았을 때 협약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에는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간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의 발송 여부와 컨소시엄 구성안의 주주협의회의 안건 상정 문제에 가렸지만 이 두 사안이 해소되면서 협약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박 회장 측은 이 협약서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협약서에 우선매수권의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매조건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채권단에 알려야 하는데, 매매조건 중 일부는 차지한 협약서를 받지 않은 이상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산업은행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협약서'를 박 회장 측이 요구할 권리도, 산업은행이 쥐어 할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하면 제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협약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한전, 소외 청소년 무료 방과후 학습지원 12월까지 200여명 혜택

한국전력(사장 조원익)은 지난 30일 본사 한빛홀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학생, 중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과후 학습지원 킷오프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명사초청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한전의 방과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뛰어난 학습능력과 열정을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학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번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30주간 소외계층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수업 방식은 대학생 1명이 5~6명의 중학생을 지도하고 영어와 수학과목을 1회당 2시간씩 매주 각 2회씩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30일 본사 한빛홀에서 방과후 학습 지원 킷오프와 지역민과 함께하는 명사초청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한전 제공>

광공업 생산 광주 늘고 전남 줄고

2월 대형 소매업 판매지수 '뚝'

지난 2월 광공업 생산율이 광주 지역은 증가한 반면 전남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22.7%, 전월대비 0.2% 각각 증가했다.

분야별 생산품목 중 비금속광물, 기타 제품, 금속가공은 감소했으나 자동차,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고무, 플라스틱이 증가했다. 광주 지역 백화점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10.9% 감소했고, 대형

마트는 19.5% 줄었다.

2월 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은 1차 금속, 기계장비, 금속가공 등은 증가했으나 기타 운송장비, 석유정제, 화학제품 등이 감소해 전년 동월대비 5.2%, 전월대비 0.2% 각각 감소했다.

생산자제품 출하는 비금속광물, 석유정제, 기타 운송장비 등은 감소했으나 1차 금속,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대비 0.4%, 전월대비 0.7% 각각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3으로 전년 동월대비 14.5% 감소했다.

중소기업 경기 풀리나

광주·전남 경기전망지수 2개월 연속 상승

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미국 금리인상 등 부정적인 대외요인에 불구하고 소비심리 개선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에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회장 임경준)가 최근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217개를 대상으로 4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월(88.7)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89.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90.7)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91.4, 전남은 전월(85.0)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84.6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87.8)대비 0.8포인트 상승한 88.6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은 89.4로 전월과 동일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업 평균가동률은 광주는 전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73.7%, 전남은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67.5%로 조사됐다.

LH, 저소득 지원 주택 추가 매입

6월30일까지 광주 463·전남 177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 지원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추가 매입해 임대한다.

기존 주택 매입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최저 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임대조건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매입물량은 총 640가구로 광주 463가구(동구 110, 서구 100, 남구 100, 북구 53, 광산구 100), 전남 177가구(광양 7, 나주 20, 목포 70, 무안 10, 순천 50, 여수 20)다.

매입대상 주택은 2012년 1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이다.

LH는 생활 편의성과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가액에 따라 선별 매입한다. 단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

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며 동별로 일괄 매입한다.

매입 신청은 3일부터 6월30일까지 LH 광주전남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360-3251, 3276.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10 13 22 31 32	29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28,246,542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9,023,218	59
3	5개 숫자일치	1,493,222	1,937
4	4개 숫자일치	50,000	99,448
5	3개 숫자일치	5,000	1,652,756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격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